

## 비즈 프리즘 |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 “혁신성·자금능력 미흡”...키움·토스 모두 탈락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자본력 발목  
“키움, 증권에 은행만 추가” 비판  
최종구 “3분기 내에 인가 재추진”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와 관련해 신청을 한 키움과 토스, 두 컨소시엄의 불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업계 예상을 깨 결과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취득에 실패했다. 당초 상황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금융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는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업계가 이번 결과에 놀라는 것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이

다. 두 곳 모두 혹은 최소한 한 곳에 인가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전에 결과를 보고받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최근 대주주적격성 심사로 애를 먹으면서 적자가 허덕이자 금융당국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속적인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신청 직전에 신한금융을 비롯해 현대해상, 카페24, 직방 등 주요 참여사가 빠진 데다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 7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수 년째 적자

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이 예비인가의 걸림돌이 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 역시 시장에서 우려했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존 키움증권에 은행을 추가하는 모양새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발목을 잡았다.

두 후보기업이 모두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하면서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신청을 최대한 빨리 실시해 연내에 인가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3분기 내에 신규 인가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고 이번에 탈락한 2개 컨소시엄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0~24일

코스피지수	2045.31	↓	-10.4
코스닥지수	690.03	↓	-12.05
日 닛케이 지수	2만117.22	↓	-48.39
중상하이 종합	2882.30	↓	-184.5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64	↓	-0.04
환율 (원·달러)	1188.00	↓	-7.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8981.41	↑	+2.18

지수는 24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 삼성전자 98인치 QLED 8K TV 출시



삼성전자는 국내시장에 2019년형 98인치 QLED 8K TV (QN98Q

950R·사진)를 출시했다. 퀴텀닷 기술을 기반으로 3300만 개 화소를 지녔고, 입력 영상을 8K 수준으로 높여주는 인공지능 기반 화질 엔진 ‘퀴텀프로세서 8K AI’를 채용해 초대형 화면에서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즐길 수 있다. 98인치의 경우 최대 5000니트 밝기로 HDR 영상을 구현해 주는 ‘Q HDR5000’ 기능으로 영상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 출고가는 7700만 원이다. 김병근 기자

## WHO “게임중독도 질병”...국내 업계 반발

질병코드 부여면 3년간 10조+  
공동대책위 구성...반대운동 펼쳐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엔씨소프트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캠페인 이미지. 사진출처 | 엔씨소프트 페이스북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보고 절차만 남았다. WHO는 게임 통제 기능이 손상되고,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 발표는 2022년 1월부터다. 권고 안이어서 도입여부는 각 회원국이 정한다. 한국은 26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입 여부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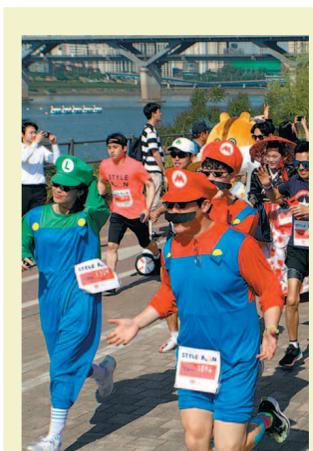
해도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주기에 따라 2025년 고시, 2026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반대 측은 장애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 주목받는 게임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장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시장 규모가 10조 원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를 주축으로 88개 단체가 참여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대위 측은 “미국 정신의학회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문화적 권리의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표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대운동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슈퍼마리오 입고 달려요”**  
롯데 유통사업부문이 26일 서울 독성 한강공원에서 ‘제3회 롯데 스타일런’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슈퍼마리오 등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복장과 분장을 하고 달리는 이색 마라톤 행사다. 5km와 10km 코스로 열렸으며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쇼핑

파라다이스시티, 제니스 워그 디지털숍 오픈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는 패밀리 테마파크 원더박스에 25일 ‘아시아 최고의 파티시어’로 불리는 제니스 워그의 디지털숍을 오픈했다. 제니스 워그는 초콜릿 페인트를 활용해 디지털을 장식하거나 초콜릿 크레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림을 제안하는 등 세성 넘치는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원더박스의 제니스워그 디지털숍은 대표 제품인 초콜릿 롤리팝과 초콜릿 페인트,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 원더박스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초콜릿 봉봉 등을 선보인다. 김재범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 합격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 강주현의 퍼즐월드 | WWW.경품광고퀴즈.kr | WWW.매직스도쿠.kr

## 주택관리사 교육기관 선택, 합격 이후 고려하라!

주택관리사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되는 2차에 걸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최근 높아진 난이도와 함께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이슈도 있다.

노력 끝에 합격을 일궈낸 수험생들에게는 한 단계의 관문이 남아있다. 바로 취업이다.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취업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 혼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소개서, 면접과 같은 전형을 준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 전 교육기관 선택 시 ‘합격 이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격 이후 네트워크 조성부터 취업, 실무 등 인생 2막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 후 취업에 고민하는 자사



주택관리사 동문회는 자사 출신 학원과 온라인 강의 출신 합격자로 구성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 후배 합격생들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에듀윌은 이를 위해 매년 주택관리사 합격생들로 구성된 인맥북을 제작했다. 올해도 작년 제21회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을 포함한 인맥북을 발간해 자사 출신 생들에게 배포했다.

출신 합격생들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면접 팁, 현장 실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는 전국구 규모의 합격자 네트워킹을 보유한 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는 자사 출신 학원과 온라인 강의 출신 합격자로 구성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 후배 합격생들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에듀윌은 이를 위해 매년 주택관리사 합격생들로 구성된 인맥북을 제작했다. 올해도 작년 제21회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을 포함한 인맥북을 발간해 자사 출신 생들에게 배포했다.

## ■ 스도쿠문제

	5		2	9		8		
7					5		9	
	4		8		7			
9		7		6		8		
	4			9		3		5
			3		4		9	1
				2		6		9
2		4						8
	3		1	9			5	

## ■ 스도쿠정답

2	9	7	6	1	9	8	8	
8	9	1	5	2	8	7	6	2
6	8	4	9	8	2	9	1	5
1	2	6	8	7	1	8	9	5
9	2	9	8	1	6	2	8	7
7	6	8	7	9	5	2	1	6
2	1	8	2	9	8	7	6	9
6	7	9	1	8	9	8	2	1
9	8	1	6	2	7	1	9	8
2	6	8	2	7	8	9	5	1
2	8	9	1	6	9	7	2	8
9	1	7	8	9	2	8	1	6
9	2	9	6	8	7	8	1	2
8	7	8	7	9	1	2	6	9
1	2	6	9	2	8	9	8	7
8	9	2	7	8	6	1	8	9
7	8	2	9	1	2	6	9	8
6	9	1	8	9	9	2	7	1